
중학교 친구가 지난 주말 자취방에 놀러왔다가 집에 가기 전, 내가 좋아하는 짬뽕 집에 데려갔다.



귀여운 도라에몽을 찾아보자

블로그 리뷰에는 암묵의 룰이 있다.

원래 첫 사진에서 식당 전경이나 가는 길을 소개해주는 것이 국룰인데, 웰치스 포도맛 찍다가 까먹었다.

도라에몽이라도 잘 찍혔으면 좋았을텐데, 의도치 않게 찍은 도라에몽이라 화질도 구리다. 나지만 꿀받네.



네온사인을 시계방향으로 90도 기울여서
일본 만화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짬뽕, 짬뽕야의 초성이 된다.

고기 짬뽕 면 두 개와 탕수육 중 사이즈를 주문했다.

여기는 짬뽕의 면/밥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짬뽕밥에는 면도 약간 들어가는데 짬뽕면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 오는 사람에게 나는 짬뽕밥을 추천한다. 근데 친구는 그냥 면으로 먹더라.



고기 짬뽕과 탕수육이 나왔다.

짬뽕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고기, 숙주, 양파, 배추, 단단한 메추리알 장조림, 기타 등등.

육수는 색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맵지 않은데 진하면서 고소하고, 비지찌개스러운 살짝 거친 묵념김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이다.

아마 맨 처음으로 먹은 게 새내기 때 과 MT 다녀온 다음인 것 같은데, 그 때 먹은 게 정말 정말 맛있었다.

탕수육은 튀김옷은 바삭하고 고기와 아몬드는 고소한데 소스는 달콤하니 조화롭게 맛있어서 여럿이서 오면 하나 주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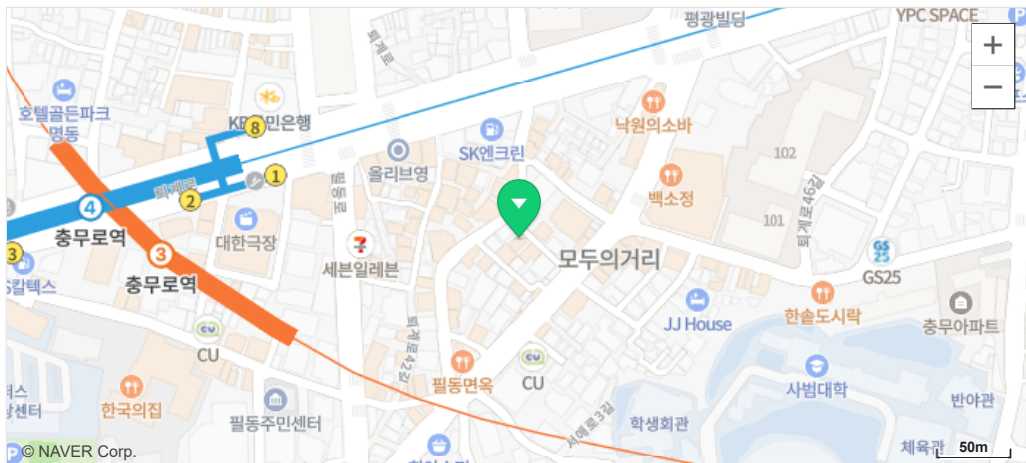
짬짜름한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

여기 짬뽕은 양이 많아서, 배고플 때 와야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이 날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서, 아쉽게도 국물까지 다 비우지는 못했다.



정말 오랜만에 주변 코인노래방에 와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
 천 원에 두 곡으로 가격이 올랐다.
 무리해서 아이유 노래 부르다가 목 다 나가는 것으로 진짜 마무리.



잠뽕야

